

책과 차 그리고 '치웃의 자리'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주택가에 위치한 '치웃의 자리'는 책과 차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독립서점이다. 사진은 서점 내부 모습.

‘독립서점에서 즐기는 차와 여유’

12평 남짓 조그마한 책방에서 나 홀로 책을 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내 집, 내 방에 있어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찾으면 좋을 만한 책방이 문을 열었다.

어느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독립서점 '치웃의 자리' (광주시 북구 두암동 848-16)는 규모는 작지만 예약제로 운영돼 서점을 통째로 '전세' 낸 듯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지난 몇 년간 광주에는 1년 365일 문을 여는 무인책방, 매년 주제를 정해 10 여권의 책만 판매하는 서점, 식물과 관련 서적 등을 판매하는 식물책방 등 책을 판매하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 독특한 특색을 담고 있는 독립서점들이 생겨났다.

'치웃의 자리'도 그 중 하나다. 이곳은 '차' (茶)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조용히 사색하며 여유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입구 오른쪽, 간판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간을 가득 메운 인센스 스틱 향이 마음을 녹인다. 서점에는 음악이 흐르고 유리창을 통해 따스한 겨울 햇살이 들어온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있고, 그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올려져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 읽을 수 있다. 한쪽 벽엔 가죽, 계절, 여행을 주제로 한 책들이 꽂혀있고 딱딱한 서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한 옷걸이, 목자신발 등의 소품을 보는 재미도 있다. 감엽병 시대, 한쪽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곳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지난 10여 년간 요식업에 종사했다는 서점 주인 이

진(39)씨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일을 그만두고 서점을 열기로 했다.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했다는 이 씨는 만화방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다.

“친구랑 내기하듯 책을 읽었어요. 도서관 다독자 명단에 항상 오를 정도였죠. 제가 어렸을 땐 만화방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어요. 연탄난로를 피워놓고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책을 보기도 했었죠. 나중에 커서 그런 책방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독립서점이자 찻집인 셈.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시간이 소요되듯이 차를 우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둘의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책방 이름도 '책'과 '차'의 치웃을 따 지었다.

서점을 이용하려면 예약은 필수다. 80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탄산수, 간식 등이 미리 세팅된 자리가 반겨준다. 메뉴에는 백·황·청·흑차 등 네 종류의 차와 와인, 디저트 등이 적혀있다. 차를

주문하면 마들렌, 조각케이크, 보니밤, 호두정과 등 그때 그때 달라지는 간식이 함께 나오는데, 가격대는 1만 3000원~2만원이다.

이 씨는 주로 책을 통해 차를 배웠다. 그리고는 서울의 유명 찻집을 다니며 직접 맛을 보고, 차회(茶會)를 찾아 다니며 조언을 들었다.

“차는 백·녹·청·홍·흑차 등 5대 다류 또는 황차까지 6대 다류로 분류되는데 이 차들을 모두 메뉴에 넣기엔 종류가 많아 우선 백·황·청·흑 네 종류만 팔기로 했어요. 가장 대중적이면서 거부감이 적은 차를 위주로 선택했고, 봄에는 카모마일, 여름에는 녹차 등 계절에 어울리는 차를 제공하는 시즌메뉴도 준비했습니다.”

계절마다 만날 수 있는 차가 다르듯 책도 철마다 달라진다. 여름에는 여행을 주제로 한 책이, 가을·겨울에는 위로와 위안을 주는 서적이 주로 팔린다. 최근에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도 인기다.

원래는 늦은 밤, 새벽까지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메뉴에 와인이 있는 것도 술과 함께 보는 책이 색다른 재미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 늦게까지 하는 식당, 술집은 있어서 책방은 없잖아요. 캄캄한 밤, 자신만의 공간에서 술 한잔과 함께 책을 보는 재미를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19로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지만 언젠가 제한이 풀리면 새벽까지 열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점이 그저 책과 차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올해는 작가와의 대화, 원데이클래스 등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할 생각이다.

“예약시간에 앞매이지 않고 많이들 오셔서 편하게 있다 가시길 바랍니다. 책, 차와 함께 다양한 클래스도 준비할 예정이니 '사랑방'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주세요. 운영시간 낮12시~밤9시, 매주 화요일 휴무. 문의 010-2710-9038. /글·사진=전은혜 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술의 향기 흐르는 '아트숍'

전남도립미술관 운영

10여종 아트 상품 판매



미술관을 찾는 즐거움은 여러가지다. 물론 멋진 전시회를 관람하는 게 가장 우선일 테지만,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것, 마음에 드는 아트 상품을 구경하고 구입하는 것도 미술관을 즐기는 법 중 하나다. 아트상품은 전시장에서 작품으로 마주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지난해 봄 문을 연 광양의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아트숍 운영을 시작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아트숍에서는 개관 기념전 '산'을 등지고 물에 바라보다, '순채형 전',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등 5개 기획전의 전시도록을 비롯해 미술관 소장품과 연계한 10여종의 아트 상품이 판매된다.

상품은 이권희 컬렉션 기증작품 중 김환기·천경자·박대성·유영국의 작품을 활용해 제작한 엽서, 패브릭 포스터, 마그넷, 유리컵 4종과 미술관 로고가 각인된 다양한 문구류와 생활용품, 줄리안 오피의 작품을 모티브로 제작한 예코백 등이다.

특히 패브릭 포스터는 인테리어 소품뿐만 아니라 스카프와 같은 액세서리로도 활용 가능한 재질로 제작해 일상에 미술 작품을 녹여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제작에 활용된 작품은 김환기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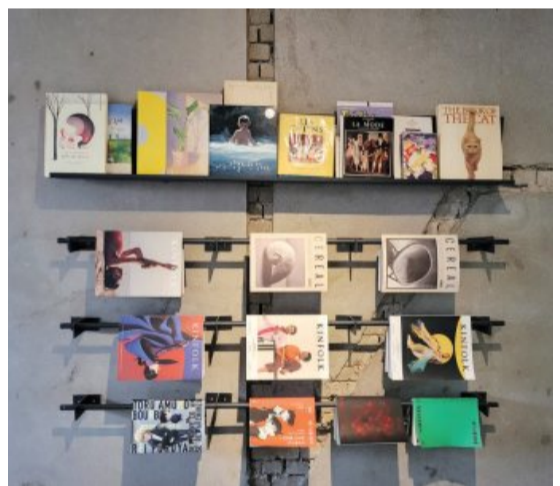
제', 천경자의 '화혼', 박대성의 '일출봉', 유영국의 '무제', 줄리안 오피의 'Walking in London'(사진)이다.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인 카페테리아 'Platform 660'도 눈길을 끈다. 카페 이름은 현재 도립미술관이 자리한 곳이 과거 경전선이 지나던 광양역 터인 점을 고려, 물자와 승객이 오간 곳이 이젠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아 지었다.

카페테리아 벽면에는 정정주 작가의 작품을 설치, 휴식공간과 더불어 또 다른 전시공간 역할을 한다. 정 작가의 작품 '이동(Transfer)'과 '굽은 복도(Curved Passage)'는 빛의 움직임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미술관 공간에 맞춰 미술 작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한 일종의 '커미션 워크'로 전남도립미술관의 카페테리아는 공간이 지닌 목적과 작품의 감성이 결합해 휴식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쪽 벽에는 잡지, 그림책 등이 전시돼 있다.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차와 다과.

9인 9색...현대미술 매력

금봉미술관, 27일까지 '호화(虎畫)로운 스타트'전

'9인 9색, 현대미술의 향연.'

금봉미술관(관장 이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호화(虎畫)로운 스타트'전(27일까지 1전시실)을 개최한다.

다채로운 소재와 재료 등으로 작업하고 있는 9명의 작가를 초청한 이번 전시는 아트부스전으로 운영돼 눈길을 끈다. 전시장 벽면에 일괄적으로 작품을 거는 형식에서 벗어나 참여작가 스스로가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관람객을 만나는 전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모두 4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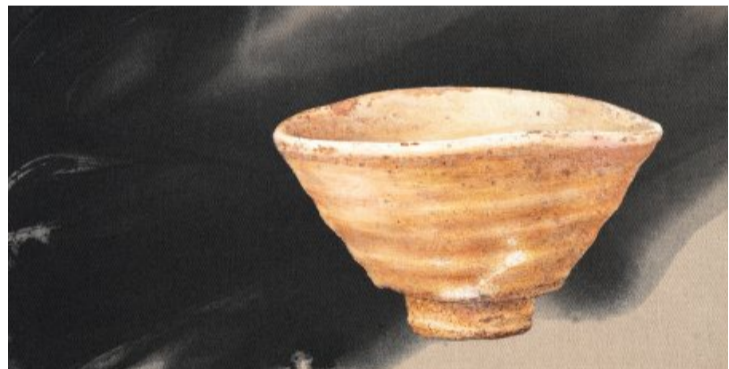
'일상은 선물이다'를 주제로 작업하는 한은혜 작가는 최근 작업중인 신작 추상 작품 '노아 방주 시리즈'를 선보이고 신선운 작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통해 건강한 생태환경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것'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김현희 작가는 '도시어류:도시공간 안에 헤엄치는 기록' 시리즈를 전시 중이다.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물고기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유로움과 평온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 염순영 작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풀꽃들을 확대 해석한 '풀꽃도 꽃이다'를 선보이며 이성을 향한 성적 인식과 차별을 그림에 담아내고 있는 김미에 작가는 현대 여성들이 독립된 주제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질문한다.

설상호 작가는 작품 안에 막사발을 등장시켜 소소한



설상호 작 '관계(關係)- relation'

일상 속 '관계(關係)- relation'를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진허 작가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삶의 이야기거리와 지혜를 담아내듯 늘어나는 여성의 주름과 꽃들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그밖에 음악, 꽃과 자연이 주는 힐링과 위로를 화폭에 담은 김미영 작가,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몽환적인 느낌으로 풀어낸 류신 작가의 'realation-blue' 등도 만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



전남도립미술관 아트숍 전경.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